

지역 소식

장수군연합회 계남지회 이웃 일손돕기



비쁜 영농철에도 불구하고 장수군연합회 계남면지회(회장 홍복철)에서 일손이 절실한 농가를 찾아 일손 돕기에 나서 주위에 귀감을 사고 있다.

계남면 회원 30여명은 4월 16일 교통사고로 입원중인 류기행 농가(44, 계남 화양리)의 사과농장을 찾아 적화작업을 도왔으며 이날 회원들은 5ha에 달하는 사과원에서 하루 종일 사과꽃 수기 작업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홍복철 한농연계남면지회장은 "농장을 돌보지 못하고 병원에서 내내 마음을 즐기고 있을 류기행 농가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다"고 말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합천군연합회 교육기금 기탁

한농연 합천군연합회(회장 류병걸)는 3일 제12회 합천군 농업경영인의 날 및 제21회 가족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개회식에



참석한 심의조 합천군수에게 교육발전기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합천군연합회는 어려운 농촌 현실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하나로 단합된 의지로 농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경영인의 날 기념식과 함께 가족 체육대회를 개최해 왔으며 이날 행사는 농업경영인과 가족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뮤어 달리기, 율놀이, 줄넘기, 노래자랑과 경품 추첨 등 다양한 행사로 이어졌다.

경남지역 농업경영인 출신 지방의원 협의회 발족

지난 5월 4일 광역의원 1명과 기초의원 18명으로 구성된 '경남농업경영인지방의원협의회'가 부산경남경마공원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경남지역 농업경영인 출신 지방의원들이 협의회를 발족해 활발한 정보교류와 연대, 한농연과의 유기적 공조를 통해 지방농정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다짐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이날 발족선언문을 통해 "투철한 농업수호 의지와 마인드를 바탕으로 농업농촌의 희망 창출과 지역농정 활성화에 기폭제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특히 "구체적 피해 분석과 충분한 대비책은 물론 이해당사자와의 협의와 국민적 동의를 생략한 채 미국의 일방적 요구와 반농업세력들의 근시안적 맞장구로 강행된 한미FTA 체결은 무효화 되어 마땅하다"며 "무효화 활동에 적극 떨쳐나서겠다"고 밝혔다.

영호남 농업인 화합한마당 행사 성료



영호남 농업경영인들의 화합 한마당 행사가 지난 14일~15일까지 2일간 삼천포해상 관광 호텔 구룡대에서 있었다.

영호남의 농업경영인들의 대동단결과 농업수호의 의지르 다지고 양지역의 화합과 상생의 기틀을 마련키 위해 경남도연합회(회장 이현호)와 한여농경남도연합회 소속 도,시,군의 임원 500여명이 참여했다.

개회식에서 이현호 경남도연합회장은 “현재의 농촌이 그리고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농업정책의 실패와 선진국의 모방형 농정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의 몫으로 남았다”고 말하고 “아무도 우리들의 참상을 걱정하고 도와주지 않으므로 오로지 농업인들 스스로가 각성하고 하나 되어 서로 힘을 합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며 농업경영인들의 굳건한 결속을 다짐했다.

봉화군, 농업발전위해 FTA대책단 구성



한농연봉화군연합회와 봉화지역 내 농민단체, 농협, 봉화군청이 한 자리에 모여 FTA대책단을 구성했다. 이날 모임에는 한농연봉화군 연합회를 비롯해 봉화경찰서, 봉화군농업기술센터, 농협봉화군지부, 봉화군청, 봉화군농민회 등 6개 단체가 참여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상호 화합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가졌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격려사를 통해 “봉화군 농업의 회생과 발전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 과수와 축산, 유통 및 브랜드화를 전담할 FTA 대책단을 만들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연합회, 불우이웃돕기 따뜻한 손길

성남시연합회(회장 이해섭)는 쌀 50포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기로 결정하고 지난 30일 성남시 주민생활지원국을 찾아가 기증했다.

쌀 재배 농업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의 일환으로 그동안 회원 연찬회나 정기 모임 후 회원들 간 친목을 위해 지출하던 식비를 절약하여 이번 성금을 마련했다.

이해섭 성남시회장은 “이번 사랑 나눔은 일회성 행사가 아닌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농업경영인 실현을 위한 첫걸음으로 지속적인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도연합회, 지역농정활성화 모색

경북지역 지방선거 당선자 ‘(가칭)한농연경북 지방자치협의회’ 발족



지난 17일 구미시 구미웨딩뷔페에서 지방농정 활성화를 위해 땀 것을 다짐하면서 경북지역 농업경영인 출신 기초 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등 43명으로 구성된 ‘(가칭)한농연경북 지방자치협의회’가 발족식을 가졌다.

이날 발족식에는 한농연경북도연합회(회장 이일권) 임원 및 산하 각 시·군 연합회 회장단과 농업경영인 출신 이정백 상주시장과 방대선 경북도의회 부의장 등 협의회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한농연경북도연합회와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유기적 공조를 통해 지방농정의 활성화 방안을 공동 모색해 나갈 것을 다

짐했다.

이날 43명의 협의회 회원들은 발족선언문을 낭독을 통해 “농업을 경시하고 시장개방에만 혈안이 된 정부와 시장주의자들의 통상정책으로 수입농산물이 범람해 우리 농업과 농민은 이 땅에서 더 이상 설자리를 잃어 가는 뼈아픈 고통이 반복되고 있다”며 “우리 43인의 한농연경북 출신 지방선거 당선자들은 한농연과 함께 우리 농업의 역사적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군산시연합회 장학기금 기탁



한농연군산시연합회(회장 최병은)는 지난 22일 문동신 군산시장을 방문해, 벚꽃예술제 먹거리 매장 운영으로 얻어진 수익금 100만원을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장학기금으로 기탁했다.

군산시연합회는 지난달 열린 제11회 군산 벚꽃예술제 기간 동안 먹거리 매장을 운영하면서 회원 상호간 화합과 단결을 다지고 또한 친환경, 무농약으로 직접 재배 생산한 농산물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관광객들에게 홍보하고 수익금 기탁을 통해 주위에 귀감을 사고 있다.

최병은 군산시연합회장은 “군산시민이 만들어준 이익을 다시 환원하는 방법을 찾던 중 작지만 군산시 전체의 염원인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 인재 양성에 기탁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